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DCW) 2026 공모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DCW)은 2011년에 시작한 이래, 우리 사회와 동시대 미술에 유효한 질문과 실천을 이어갈 큐레이터의 성장과 협업을 꾸준히 지원하며, 한국의 큐레이터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총 45명의 큐레이터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참여자들에 의해 서울과 뉴욕에서 총 21회의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DCW는 참여자들의 밀도 있는 교류와 대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관계, 공유 및 재생산하는 지식과 예술에 집중합니다. 함께 읽고, 쓰고, 질문하며,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탐구하고 스스로 조직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한 형태의 세미나, 멘토링, 필드트립(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 프로그램 기획 지원 등을 통해 큐레이터의 성장에 함께합니다. 또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최빛나 큐레이터가 슈퍼바이저로 DCW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제출 서류

공모지원서(자유형식)

*공모지원서는 자유형식으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하나의 PDF, 용량 20MB 이하의 문서로 제출해주세요.

1. 기본 정보:

지원서의 첫 번째 페이지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이름, 국적, 생년월일, 현재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2. 프로그램 참여 동기:

DCW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 과정에서 하고 싶은 질문과 경험하고 싶은 것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최대 1,000자)

3. 큐레토리얼 관점:

– 동시대 미술 및 문화, 사회 전반에서 큐레이팅 혹은 큐레이터의 현 역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문제의식, 비전을 나누어 주세요.

– 큐레이터로서 본인의 현 질문과 고민을 잘 드러내는 작가나 작품, 전시, 기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각각 최대 500자)

4.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는 기획 경력 및 실무 경력을 명시한 CV를 포함해주세요.

문의

doosangallery.seoul@doosan.com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전화 문의 불가